



충혼탑



써클 영상관

고양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일시 2023. 6. 6(화). 현충일 09:50
장소 고양시 현충공원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
일시 2023. 6. 25.(일). 09:20
장소 고양 6·25 참전 기념비



기획전시실 '전쟁과 평화, 그날의 기억'

전쟁과 평화, 그날의 기억

고양시 현충공원 입구에 위치한 고양시 현충전시관은 2018년 개관한 전시 공간이다. 고양시 현충전시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관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상설전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배법씨인 가와지법씨 소개를 시작으로 고양시의 현충 역사 속 인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6·25전쟁과 세계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해외파병 부대 이야기까지. 고양시의 호국 서사가 관람객의 동선에 맞춰 스토리텔링 되어 있다. 그중 6·25전쟁과 관련된 주요 지표와 이야깃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되는데, 고양 지역에서 벌어졌던 고양 정발산 전투부터, 고양 선유리 일대에서 벌어진 해피밸리 전투, 임진강 전투로도 불리는 설마리 전투까지. 6·25전쟁 발발 후 국민을 지키고 한반도를 수복하기 위한 호국영령들의 긴박하고 치열했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다. 특히 정발산 전투는 태극단과 미군의 연합으로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정발산을 확보하게 된 중요한 전투였다. 정발산 전투 이후, 비밀 결사대였던 태극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공산군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어서 태극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공간이 이어진다. 당시 태극단이 사용했던 도시락과 완장, 머리띠, 족창이 복제돼 전시되어 있다. 학생, 교사, 경찰, 공무원, 농민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태극단은 활동 초기,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지만 큰 결사대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유격 임무를 수행하며 활약했다. 나이, 성별, 직업과 상관없이 오로지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태극단의 결연한 의지가 고양시 현충전시관에 고스란히 담겨져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mini interview



고양시 현충전시관 문화관광해설사
우정숙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풍요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해
고양시 현충공원을 둘러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49
+ 운영 시간 10:00~17:00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단 현충일 정상운영)

발걸음은 지하 1층 기획전시실로 향한다. '전쟁과 평화, 그날의 기억'이란 주제로 고양지역에서 발굴된 6·25전쟁의 군용 물품과 무기가 전시돼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고봉산에서도 큰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많은 유골과 1,000여 점의 유품이 발견됐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이 담긴 사진들이 나란히 이어져 전시실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행주도강 작전 당시, 수륙양용 장갑차와 함께 찍힌 여자아이의 사진, 전투로 다리를 잃은 사진, 피난길에 오르는 사진 등 당시의 처참하고 가혹했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선대의 투쟁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힘이 있다.

기획전시실을 지나 2층 써클영상관에 오르자 호국을 위해 헌신해 온 장병들의 서사가 영상으로 펼쳐진다. 3분가량으로 구성된 이 영상은 에필로그처럼 고양시 호국의 역사를 갈무리하며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국민이 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황폐해진 땅을 다시금 기르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뿌리가 되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